

이런 냉동 창고 화재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매스컴에서 비슷하게 뽑은 제목들은 '아직도 이런 후진국 형 人災가...'였다. 마치 선진국 문턱 앞에서 있는 한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듯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주변은 그런 참사가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안전이 잘 보장돼 있는 것일까? 여기에 '그렇다'고 답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떨떨하던 한강의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정원을 넘긴 여객선이 강물에 가라앉고, 쇼팽객으로 불리던 백화점이 천정 째 무너지던 지난 90년대에 비해 빈도는 낮아졌을지언정 재난의 규모나 재난 형태의 다양성 등 위험성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는 보다 큰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이 보다 엄청난 규모의 재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었으며, 1년 전 일어났던 여수 출입국 관리소 외국인 보호시설 화재 사고는 그 희생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밀입국한, 그래서 철창 속에 갇혀 빠져 나올 수 없었던 외국인들이었다는 점에서 재난의 새로운 유형으로 꼽을 만하다.

이런 이런 냉동 창고 화재에도 희생자 가운데 중국동포가 많아 중국 매스컴을 비롯해 중국 당국이 당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無形의 세계 업그레이드를

던 사건 사고 하나도 앞으로는 세계화라는 입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짚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따져보면 한국 현대사에서 산업화 이후 '대형 사건사고'라는 갈잡지 않은 동행객이 따라 오기 시작했다. 우리의 산업화가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조심성과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이 성급한 경제적 성과, 대형화, 효율화 등을 서둘러 왔기 때문이다. 그 성급함이 '빨리 빨리' 증상을 불러왔고 오죽하면 외국인들에게 그 '빨

리 빨리'란 말이 한국인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을까.

어쩌면 1971년 165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는 산업화 이후 그런 사건 사고의 끊임없는 역사를 예고한 것일 터이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나 이천 지하 냉동 창고 화재 참사도 그 맥을 잇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충분한 자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런 참사 역시 '빨리 빨리' 진행될 위험

했던 공사가 그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전에 있었던 여러 건의 비슷했던 냉동 창고 대형화재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지금 한국 유형(有形)의 산업 시설은 거의 선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안전 불감증'이란, 형체가 없는 무형(無形)의 것이다. 이는 '빨리 빨리' '속전속결' 등의 마인드에서 나온다. 그 마인드가 초기 산업화 시대 이후 크게 변한 것이 없어 보이며 바로 이점이 문제다. 선진이란 이런 유형, 무형이 보조를 함께 하고 있는 사회에 붙일 수 있는 수식어일 것이다.

사실 어떠한 사건 사고 한 가지도 그 사회의 모든 것과 아무 고리 없이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다행이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느리게 살기' 운동 등 '빨리 빨리'와 대칭되는 그 무엇들이 환영받기 시작하고 있다. 부작용 많았던 숨 가쁜 질주에서 크게 한숨들려보자는 자각에서 나온 것일 터이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후 전국 규모 자원봉사자들의 눈부신 활동 역시 무형의 마인드가 선진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새로 들어 설 '이명박 정권'은 '경제 제일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연초에 일어난 대형 참사는 그 속도 문제에서 경제 제일주의에도 일깨워 주는 바가 많을 것이다.

“깊은 믿음은 즐거움과 지혜로운 행을 낳는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④7 새해에 바라는 마음의 입력

새해를 맞이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갖고 싶은 마음, 꼭 필요한 마음에 대해 몇 명의 대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1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이 있다. 늘 준비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무엇을 담든지 아름다운 마음 그릇을 만들고 싶다. 부족하고 미흡했던 학업, 높은 학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야겠다. 자격증 시험도 열심히 준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목표를 정하여 몰두하는 열정, 꾸준한 노력이야말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람 실는 매우 소심하고 소극적이다. 이런 성격은 친구관계나 학교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활달하고 리더십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고 한 때 나의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스스로 혐오스럽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

“You want to see a miracle, son? Be a miracle(자네 기적을 보고 싶냐? 자네 스스로 기적이 되게. 노력해서 달라지는 것이 기적이야.)” 영화 ‘브루스 울마이어’에서 모건 프리먼이 짐 캐리에게 한 말이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다. 나도 내 인생에 기적과 희망을 품고 살아보고 싶다. 새해엔 진로 준비와 영어 시험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신에 대한 이해와 명상이 아닐까 싶다.

2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마음가짐이다.

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강화시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한다.

3 나는 워낙 성격이 급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급하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참선시간에 배운 대로 마음에 우주에너지를 충전하면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해야겠다. 어떤 과제나 일의 마감시간을 볼 때 여유롭게 대할 줄 알아야 할 것 같다. 항상 촉박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말도 좀 더 천천히, 포박포박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명상을 통해 차분한 마음을 입력해야겠다. 더불어 남에게도 빨리빨리 하라고 강요하지 말아야겠다.

4 게으름을 버리고 자신감을 가져야겠다. 게으름이 나 자신에게 최고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상하게 자꾸 몸과 마음이 게을러져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놓치게 되고 만다. 내가 올해 제일 버려야 할 것은 게으름이다. 그리고 자신감을 더 강화해야겠다.

제대해서 나이는 먹어가고 젊음은 해야 되는 데 사회에 나가는 것이 부단스럽다. 자꾸 위축되

5 내가 입력하고 싶은 격언 세 가지. ‘사람의 힘으로 달성할 수 없는 일이란 거의 없다. 노력은 적게 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곳에 인생의 한숨이 있다’ ‘나는 나를 경영한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깊은 믿음으로 입력하세요

새해의 결심은 자칫하면 자심삼심이 되기 쉽다. 마음에 입력을 하면 생활에서 출력이 되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이다. “깊은 믿음은 즐거움과 지혜로운 행을 낳는다”고 하였다. 마음의 근본에서 나의 습관과 행동과 생활이 나온다는 것,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란 점을 깊이 믿는다면 보다 충만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행과 강사)



불자의 눈

‘대운하’ 우려의 소리 경청하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대운하 프로젝트는 엄청난 양의 문화유산 훼손과 파괴를 불러오게 되고 수행환경을 해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경제성과 생태환경 보존 등으로 나뉘고 있다. 추진을 밀어붙이는 대운하 TF의 입장은 “청계천보다 쉬운 공사”를 통해 막대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기름값을 비롯한 산업 기반의 경제성을 향상시킨다는 것, 그리고 운하 주변의 위락시설 조성 등을 통한 국민의 휴양처 개발 등을 주된 이득으로 꼽고 있다. 반대 입장에 있는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이나 조계종 보림회·금강회 등은 문화유산과 생태환경의 보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예측불허의 상황’에 대한 우려까지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추진하는 측은 5년여의 기간 동안 공사를 하고 나면 천지가 개벽할 만한 성과가 나올 것처럼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고 반대하는 측은 국민검증위원회 혹은 합동조사단 등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보다 면밀한 조사 결과를 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뒤에 추진 여부를 판단하지는 것이다.

이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이명박 당선자가 오래전부터 구상해 온 사업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대선 때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공약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부중심의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생각은 매우 성급한 감이 있다. 한반도 대운하 TF와 이명박 당선자는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세심하게 듣고 살펴야 할 것이다. 절대 ‘청계천’ 정도로 생각하고 서둘러 추진할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참회를 생활화 하자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은 보름에 한 번씩 모여서 자신의 범계(犯戒)를 밝히고 참회했다. 참회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자신의 잘못을 안다는 것, 그래서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발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데서 선행(善行)의 힘이 나온다. 죄를 저지르고도 죄를 숨기거나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범죄와 패륜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조계종이 올 한해 ‘포살의 생활화 수행하는 종단’ 만들기 에 매진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 포살법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결계록을 발간해 수행 풍토를 공고히 하겠다니 새해를 맞으며 산뜻한 기대를 품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조계종의 몇 가지 사안들, 따지고 보면 모두 지계의식의 실종과 참회하지 않는 풍토에서 싹튼 탐욕의 그늘이 아니었던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직접 특강을 열고 수행자와 재가 불자 모두에게 ‘지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설했다. 그리고 종단적 의지를 모아 포살법회를 정례화 하며 수행풍토를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새해벽두에 내놓은 다짐이 불교계와 우리 사회를 청정하게 하는 ‘명약’이 되길 기원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벽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지의 포털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들어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희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서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오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증(輕症), 중증(重症), 중증(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 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진 한의학 박사는 “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가 가능하며 중증(重症) 중증(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